

요한복음 35번째 말씀

믿음을 방해 하는 것들

본문: 요한복음 7:19-36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는데 있어서 방해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찾아서 제거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본문을 통해서 왜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부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심히 식어 버렸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I. 성경을 잘 못이해 함(19-24)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 했고 많이 아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참다운 의미에서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20).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된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할례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이 사랑이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살인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했던 것 같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지만 피상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 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참다운 율법 정신을 배우라고 하셨다.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도 율법을 바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자 하지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성경 이해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 것이다.

II. 성경보다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당시 인기 있는 견해는 메시아가 오면 갑자기 올 것이고 어디서 온지 모르게 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일 뿐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경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미가서 5:2). 또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 하셨다(이사야 7:14).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 한대로 나사렛에서 탄생 하시지 않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탄생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탄생 하신 것이다,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고 누구로부터 오셨고 또한 그분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 진 것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고 자기생각을 가르치거나 떠 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가르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오히려 방해 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성경을 잘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성경을 잘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상식만을 전하는 거짓 된 설교자들 때문이다. 이런 설교자들의 가르침만을 받는 성도들은 참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날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에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지식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예언자가 “당신에게는 천국에 2층집이 준비되었습니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참 슬픈 일이다.

Ⅲ. 그리스도를 배척함.

믿음을 방해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예수님을 배척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 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종교지도자들의 극명한 대조를 본다.

첫째. 믿는 무리들.

31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다. 이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표적을 통해서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선생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참 메시아 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11:4-5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삶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사야 35:5-6,과 61:1에서 보면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을 예언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이사야 35:5-6)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이사야 61:1)

무리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었다.

둘째 그리스도를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다.

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십자가에 못박히셨지 결코 그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희생 당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강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영영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이해 하지도 못하고 더욱 마음이 강박하여 예수님을 배척한다.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흠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아주 무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흠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멸시한 말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혜받을 기회를 놓지게 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

이 많이 있다.

한가지 예만 들면, 잠언 1:24-28에 이런 말씀이 있다.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 했던 바로는 결국 무서운 자식이 죽는 재앙과 국가가 망하는 재앙을 받았다. 그가 일찍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했었다면 그는 그와 같은 무서운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 6:2말씀을 명심하자.

고후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중요한 때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복음을 배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떠도는 이야기를 믿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면 영영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것이다.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야 한다.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확신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나는 요즈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바로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온 힘을 다 쏟고,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자 애쓰고 있다(골 1:29).

지난 주일 저녁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한 한 성도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분은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분이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도 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지라도 내 가족 만큼은 힘써 말씀을 가르쳐 받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몇 개월 전부터는 매 주 저녁 6:30에 줌 교회를 시작 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꼭 성경공부를 배우거나 가르쳐 은혜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 아멘!!!

